



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24일 정식 출시하는 팀 기반 슈팅 게임 '오버워치'가 최근 진행한 공개테스트에서 전 세계 970만명의 게이머들을 끌어 모으는 괴력을 발휘했다. 게임 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.

오버워치 정식 출시 D-6

블리자드 18년 만의 새 IP 게임 개성 강한 21명의 캐릭터들 매력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호평 일색

블리자드의 신작이 PC온라인게임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까.

24일 정식 출시 예정인 블리자드엔 터테인먼트의 팀 기반 슈팅 게임 '오 버워치'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. 지 난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공개 테스트에는 전 세계 970만명의 게 이머들이 참여했다. 블리자드 게임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. 한국에서 도 9일 게임트릭스 기준으로 PC방점 유율 7.7% 로 3위에 랭크됐다. PC방 순위 3위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출시된 게임 중 가장 높은 기록이 다. 정식 서비스가 아닌 공개테스 트임에도 기존 3강 구도를 깼다는 점이 놀랍다. 단숨에 올해 최고 기 대작으로 급부상했다. 게이머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"오버워치 금단현상이 왔다, 무슨 게임을 해도 재미가 없다", "오버워치를 즐기기 전 내가 어떤 게임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다" 등 정식 출시 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.

● 18년 만에 완전히 새로운 IP

에 완전히 새롭게 선보인 지적재산 권(IP)이다. 특히 근미래를 배경으 로 해 픽사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연상시키는 개성 강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등 밀리터리 일색의 기존 일인칭슈팅(FPS) 게임과 차별점을 뒀다. 이 게임은 또 간편한 조작법 과 직관적 사용자환경(UI), 빠른 진 행 등 초보자들도 바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. 아울 러 "배우기는 쉽지만 고수가 되기는 어렵게"라는 블리자드의 개발 철학 을 반영해 수준 높은 게이머들도 충 분히 재미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 다. 게이머들은 왕의 길(영국), 할리 우드(미국)와 같이 친숙한 세계 주 요 지역들을 무대로 호위, 쟁탈, 점 령이라는 특정 임무를 제한시간 내 에 완료해야 한다. 게임은 15분 내외 로 짤막한 플레이를 선호하는 이들 이 부담없이 즐기기에 좋다.

●개성 넘치는 캐릭터가 매력

4월 출시(USB/비디오/DVD) 소설/만화/잡지 자위기구(남/녀)

비.씨1통6만(2통10만)조루방지5애무기5

′0~8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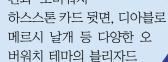
약한발기

다양한 영웅들이 등장한다는 점 도 매력 요소. 시간을 넘나드는 모 험가와 로켓 해머를 휘두르는 전사, 세상을 초탈한 로봇 수도사에 이르 기까지 개성 있는 21명의 영웅이 등

장한다. 세계 각지에서 모인 영웅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가 18년 만 은 각각 고유 스킬들을 가지고 있는 데다 공격과 지원, 수비, 돌격으로 역할이 나뉘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 서는 팀원 간 역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. 여기에 기존 게임과 는 다르게 경기 도중 상황에 맞게 영웅을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어 보다 전략적으로 즐길 수 있다. 캐 릭터 중에는 재기 발랄한 귀여운 외 모의 한국인 캐릭터 디바(D.Va)도 있다.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크래 프트 세계 1위 프로게이머이자 군 인이라는 설정을 통해 한국 게이머 들로부터 일찌감치 큰 인기를 누리 고 있다.

●21일 부산서 페스티벌 개막

오버워치는 디지털 PC 버전 (4만5000원), 오리진 에디션(6만 9000원), 한정 수량의 소장판 (14만9000원) 등 다양한 버전 으로 출시될 예정이 다. 오리진 에디 션은 다섯 영웅 의 특별한 스 킨과 오버워치



트가 담긴 풀 컬러 아트북과 몰입감 높은 오리지널 사운드트랙, 고품질 의 솔저: 76 스태츄를 담아 소장 가치 를 높였다.

사진제공 |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 게임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다. 소장 판엔 여기에 추가로 게임의 영웅과 배경 등에 대한 상세정보 및 일러스

한편 블리자드는 21일과 22일 부 산 벡스코에서 게임 출시를 기념하 는 '오버워치 페스티벌'을 연다. 무 료로 입장 가능하며 오버워치 게임 체험은 물론 이벤트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. 코스튬 콘테스트와 투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다. 김명근 기자 dionys@donga.com

CJ제일제당 "쁘띠첼, 메가 브랜드로 육성"

신제품 '쁘띠첼 에끌레어' 출시 디저트 연 매출 1500억원 기대

CJ제일제당이 디저트 전문 브랜드 '쁘 띠첼(Petitzel)'을 메가 브랜드로 육성한 다. CJ제일제당은 17일 서울 종로구 동 숭동 쁘띠첼 씨어터에서 신제품 '쁘띠 첼 에끌레어' 출시 행사를 열고 디저트 사업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.

쁘띠첼은 2000년 국내 최초로 과일 젤리를 출시하며 탄생한 국내 대표 디 저트 브랜드다. 출범 이후 약 10여 년간 연 매출 200억~300억원에 머무르며 정체됐지만 2011년 대대적인 브랜드 리뉴얼과 함께 푸딩, 롤케익, 음용식초 등 다양한 분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대했다. 최근 5년간(2011~2015년) 연평균 28%의 높은 매출 성장세를 보 이고 있다. 올해 쁘띠첼은 식품업계에 서 대형 브랜드만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 던 연 매출 15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. 일상식이 아닌 디저트 제품 으로만 이룬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 다. 쁘띠첼은 오는 2020년까지 가공 디

저트로 연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겠다 는 목표도 세웠다.

한편 쁘띠첼은 이날 행사에서 냉장 베 이커리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 설비와 R&D 등에 약 80억 원을 투자한 신 제품 '쁘띠첼 에끌레어'를 선보였다. CJ 제일제당은 "에끌레어를 출시 첫해부터 매출 100억원을 올리는 대형 신제품으로 성장시키고, 향후 성장가능성이 더 큰 냉 장 베이커리 제품군을 브랜드 성장의 한 축으로 삼기로 했다"고 밝혔다.

프랑스어로 '번개'라는 의미의 '에끌 레어(éclair)'는 "매우 맛있어서 번개처 럼 먹어 없어진다"라는 뜻으로 붙인 이 름이다. 길게 구운 페스트리 빵 안에 슈 크림을 가득 채우고 표면에 초콜릿을 입혀 만든다. 서구권에서는 보편화된 유럽 정통 디저트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인기를 얻고 있다. 김병규 총괄팀장은 "에끌레어 출시는 쁘띠첼이 진정한 의 미의 '메가 브랜드'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 쁘띠첼이 '햇반'이나 '다시 다' 못지않은 국민 브랜드로 성장하는 데 주력할 것"이라고 덧붙였다.

원성열 기자 sereno@donga.com

닛산 "캐시카이, EGR 장치 불법 조작 아냐"

환경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 까지 국내에서 판매된 경유차 20개 차종 을 조사한 뒤, 한국닛산의 SUV 차량인 캐시카이가 배출가스 양을 불법으로 조 작하는 임의 설정을 했다고 밝혔다.

35도 이상에서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가 중단된다는 것이 핵심 쟁점이다. 환 경부는 이 온도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 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하는 것 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했 다. 하지만 한국닛산 측은 즉각 조작이 아니라고 반박했다. 캐시카이가 환경부 인증을 통과할 때 이미 엔진으로 유입되 는 흡입공기의 온도가 35도일 때 배출가 스 저감장치가 정지되도록 세팅되어 있 었는데 이제와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것처럼 '조작'이라고 단언하는 것은 억

울하다는 입장이다. 한국닛산 측은 "소 명 기간을 통해 배출가스저감(EGR)장 치 정지 온도세팅이 배출가스 조작은 아 니라는 것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"이 라고 밝혔다.

열흘간의 소명기간을 거치고도 임의 설정이라고 판단되면, 5월 중 3억3000만 원의 과징금과 캐시카이에 대한 판매 중지, 리콜 명령을 받게 된다.

한편, 20개 디젤차를 대상으로 한 환 경부의 이번 도로주행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실험에서 실내 인증기준과 비교해 기준안에 든 차량은 BMW 520D(0.9배) 뿐이었다. 17개 차종은 실내 기준치의 1.6~10배, 르노삼성 QM3는 17배, 닛 산 캐시카이는 20.8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했다. 원성열 기자

KT계열 유료방송 점유율 1위

지난해 하반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1위는 KT계열로 조사됐다.

미래창조과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 은 '2015년 하반기 시장점유율 산정 결 과'를 17일 발표했다. 조사결과 총 유료 방송 가입자 수는 6개월 평균 2786만 5174명으로 집계됐다. 사업자별로는 KT 가 510만1944명으로 18.31%, CJ헬로비 전이 382만3025명으로 13.72%, SK브 로드밴드가 335만6409명으로 12.05% 티브로드가 325만1449명으로 11.67%, KT스카이라이프가 307만4234명으로 11.03% 를 기록했다. KT와 KT스카이라 이프를 합산한 가입자 수는 817만6178명 으로 시장점유율 29.34%를 기록해 IPTV 법·방송법 상 상한선(33.33%)을 초과하 지는 않았다. 김명근 기자

편집 | 김대건 기자 bong82@donga.com





《全文》字

광고문의및접수





- ★대체 진피이식술
- ★포경 · 무도정관수술
- ★각종 이물질 제거 (바세린 등)
- ★음경만곡증 (성기휨) 교정술
- ★발기부전수술 (굴곡형.팽창형 시술로 성생활 가능)

적은퓽터 최소절개

풍부한 경험

※ 수술 당일 샤워, 일반적인 생활 가능



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5번출구앞

